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 분류: 직업지위와 성역할유형을 중심으로

하 문 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을 구성하는 희망직업의 지위 상한선 점수, 지위 하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상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하한선 점수의 총 네 개의 점수를 이용하여 잠재 프로파일(Latent Profile)을 나누고 각 집단과 여성성역할,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진로결정수준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 대상의 27.8%가 속해 있는 첫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는 평균보다 다소 낮고 좁은 범위를, 성역할유형은 평균을 기준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제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전체 분석 대상의 72.2%가 속해 있는 두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가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성역할유형은 보다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의 각 잠재집단과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여성성역할이 높을수록 직업지위 확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학업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제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의 여러 개인 및 사회환경적 특성이 진로대안 프로파일 분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선택과 결정에 대한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며,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청소년, 진로대안, 성역할, 지위, 학업성취, 진로결정수준

* 홍익대학교, 교신저자, sunny7601@hanmail.net

I. 서 론

청소년기는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로, 진로발달에 있어서 어느 발달단계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Luzzo, 1993).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발달 단계상 탐색기(Super, 1972) 또는 잠정기(Ginzberg, Ginburg, Axelrand & Herma, 1951)에 해당되며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및 가치관 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은 자신이 미래에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포부를 명확히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들이 진로포부를 갖는 것은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업 등의 개인적 성취를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조단비, 정철영, 2005). 진로포부는 자신이 앞으로 진로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학업과 직업에 대한 성취기대 즉,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통해 성공과 성취를 얼마나 동경하고 원하는지를 의미한다(O'Brien, Gray, Touradi & Eigenbrode, 1996). 이러한 진로포부에 해당하는 직업포부는 '희망직업'(Gottfredson, 1981)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래의 직업선택을 예언해주는 주요 변인이다. 개인의 직업포부는 곧 그 사람의 흥미, 능력, 가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 내적 요인과 직업에 대한 이미지나 직업에의 접근가능성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래의 직업적 성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관련 특성 중 직업포부가 미래에 선택하는 실제 직업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Rojewski, 2005). 특히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성인기에 획득하게 되는 직업의 사회적 지위 수준 및 수입과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보고되어(공윤정, 2011) 청소년기 직업포부 형성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아동기에는 직업의 특성에 의해 직업포부를 결정한 것에 반해, 청소년기의 직업포부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이 함께 통합되어 반영된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직업포부가 개인의 교육적 성취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Schoon & Parsons, 2002)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 다양한 직업포부의 형성과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상담 및 진로계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 개입과 처치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청소년의 직업포부 발달은 Gottfredson(1981)의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통해 개념화될 수 있다. Gottfredson은 개인의 진로발달이 자신의 자아개념의 발달에 따라 직업의 선택지를 좁혀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성역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먼저 자아개념에 포함시켜 나가고 직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을 먼저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직업포부의 제한이란 직업의 성유형과 직업 지위에 기초하여 자아개념에 맞지 않은 직업군을 점차 제거해나가면서 수용 가능한 직업의 성유형과 직업지위 수준을 설정하고, 그 영역 안의 직업들만을 미래의 직업으로서 고려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Gottfredson은 이렇게 좁혀놓은 잠재적 직업목록들을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영역(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로선택시 성역할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진로발달의 핵심적 시기로 재조명하였다.

특히 14세 이후 청소년들은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진로대안의 영역을 확립하는 시기로,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보다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즉, 청소년 중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선택의 외적 기준이 되는 직업의 성별 유형에 대한 인식과 직업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개념발달이 마무리된 단계(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성인과 동일한 직업에 대한 인지지도를 갖게 되므로(황매향 외, 2003), 직업의 성역할유형과 직업지위에 따라 청소년기의 진로대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안정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한 진로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sipow, 1983). 연구자들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더 빨리 직업포부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거나(공윤정, 2011; Lee & Rojewski, 2009), 처음에는 넓은 범위의 직업포부를 가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etz, 1994). 반면, 여자고등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높은 포부를 가지며 직업의 지위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교적 덜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유정이, 김지현, 황매향, 2004). 최근 20년간 사회변화와 함께 전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으며(Perrone, 2009), 높은 지위의 직업은 자신의 성역할과 달라도 진로대안영역에 포함시키려는 경향도 있는 점(공윤정, 2011) 등을 고려하면, 여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독특성 및 집단별 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진로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역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공윤정, 2011; 김경주, 송병국, 2011; 오현석, 최예슬, 2009; 이성식, 2004; Gottfredson, 1996; Schoon & Parsons, 2002; Slocum & Bowles, 1968; Super, 1953) 등을 제시하였으며, 진로결정수준이 청소년의 진로대안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Scott, Reppuci & Woolard, 1995).

한편,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변인간의 관계에 치중하였다(김복환, 2013; 이성식, 2004; 황매향 외, 2003). 이러한 연구들은 직업포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신이 선택한 희망직업의 직업지위와 성역할유형에 따른 상한, 하한 경계선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취하였다. 그러나 변수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통해서 진로대안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개인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Moffitt나 Patterson와 같은 유형학 이론가들은 특정 행동발달 수준을 보이는 집단도 이질적인 하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집단별로 관련된 고유의 원인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현안나, 2009). 따라서 청소년은 진로대안영역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사람중심적 접근은 변수와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의 변수중심적 접근과는 달리, 모수 추정값에 따라 몇 가지 집단으로 분류되는지에 초점은 두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은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잠재집단으로 특히 연속변수로 간주되므로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에 해당된다. 이러한 청소년의 진로대안영역의 유형화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대안 패턴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정 진로대안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 즉 여성성역할,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여 여자고등학생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직업포부와 진로대안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Gottfredson(1981)은 기존의 전통적 진로상담가들(예, Parsons)이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및 이 둘 사이의 정확한 추론을 강조한 것에 반해, 개인의 특성과 직업세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이 둘 사이의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아개념과 직업이미지의 판단 준거로 심리적 특성보다 사회적 요인들을 강조하였다.

Gottfredson(1981)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성역할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 등을 먼저 자아개념에 포함시켜 나가고 직업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을 먼저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았다. 즉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직업의 이미지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자신에게 맞지 않은 직업들을 제거해 가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것이라 생각되는 잠재적 직업들로 구성된 진로대안영역을 구체화하고 좁혀 나감으로써 최종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진로대안영역이란 자신의 직업목록을 직업의 지위와 직업의 성역할 유형이라는 기준에 의해 제거해 나가면서 남게 되는 희망직업군의 범위를 말한다.

Gottfredson은 사회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진로의 발달적 관점에 통합시켜 1단계~4단계의 각 발달 시기별로 특정한 기준(크기와 힘, 성역할, 사회적 가치, 내적고유 자아)에 기초한 체계적인 직업적 포부의 발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4단계인 내적 고유자아 지향 단계(14세 이상)에 이르면, 직업발달이 의식적인 인식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았다. 앞선 세 단계에서 수용할 수 없는 대안들을 제거하였다면,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격, 흥미, 능력에 기초하여 가장 적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14세 이후 청소년들은 이전 발달단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허용되는 진로대안의 영역을 확립한 시기로, 앞의 세 단계가 수용하기 힘든 직업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비해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선택이 가장 선호되고 수용되는 것인지 구체화되는 과정이다(황매향 외, 2003). 또한 이들 청소년들은 내적인 목표나 자기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자기에 대해

보다 더 개인적인 지각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의한 사회적 영역인 진로대안영역 안에서 자신의 흥미, 능력,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을 탐색한다. 따라서 4단계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에 대한 연구는 그들의 미래 진로 계획 및 직업 선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진로대안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성역할과 진로대안

Super(1953)는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단하는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이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자아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성 또는 성역할이 진로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Gottfredson(1996) 역시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지위, 능력 등의 요인들 중에서 특히 성역할이 가장 견고하며 일관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관련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역할정체성에 따라 직업선택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김현정, 2000), 성역할사회화가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황도연, 2009). 특히, 여성이 설정한 진로대안영역의 성역할경계선은 남성보다 반대 성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공윤정, 2011; 이성식, 2004; Gottfredson, 1996). 이러한 결과는 직업인지 지도에서 여성적인 직업이 보통 중간 수준의 지위에 몰려있는 반면, 남성적인 직업은 높은 수준의 지위에서 낮은 수준의 지위까지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즉 여성들은 높은 지위의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적인 직업을 허용해야 하나 남성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성역할과 진로대안영역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위와 진로대안

Gottfredson(1981)은 진로대안영역의 직업 지위 하한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위를 들었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지위에 거부감이 적으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들은 지위 수준이 낮은 직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실패감을 느낄 것이고 주변의 저항도 더욱 거세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직업의 성유형보다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더 선호하며(이기학, 2005), 고등학생들은 직업포부에서 자신의 성역할과 직업의 성유형의 매칭보다는 직업 지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공윤정, 2011).

특히,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들의 직업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choon & Parsons, 2002). Blau와 Duncan (1967)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학생의 직업지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Gottfredson(1981) 역시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직업지위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직업포부에 영향을 주며(이정미, 2000), 부모의 지위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의 지위가 다르며 부모의 지위가 높은 학생들이 지위가 높은 직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오현석, 최예슬, 2009). 반면, 학생의 직업포부와 부모의 지위 수준은 관계가 없다고 연구도 있다(박열매, 2011).

3) 학업성적과 진로대안

Gottfredson(1981)은 개인의 능력이 진로대안영역에서 이상적인 직업포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진로대안의 직업지위 상한선 즉, 자신의 노력으로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들의 한계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능력수준을 들었다.

선행연구들은 전공과 직업선택에서 그 직업에 대한 능력과 유용성의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Eccles, 2011). 국내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이 청소년의 교육포부와 직업포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경주, 송병국, 2011; 정지혜, 2006). 여자 고등학생의 직업포부수준과 성적은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며(공윤정, 2011) 직업포부는 학생의 능력과 관련된다(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연구자들은 학업 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을 비교한 연구에서 학업이 우수한 청소년의 포부수준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황매향 외, 2006). 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선호하는 직업을 물었을 때, 의사나 회계사 같은 직업보다 트럭 운전수나 경찰관 같은 직업을 응답할 비율이 더 많았다(Slocum & Bowles, 1968).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이 무조건 높은 지위의 직업들을 선호하지는 않으며,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 진로결정수준과 진로대안

진로에 대하여 특정수준의 포부를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이후의 진로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직업선택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O'Brien et al., 1996). 진로결정(career decision-making)이란 자신의 직업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직업세계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피하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의미한다(Lopez & Ann-Yi, 2006).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수준이란 진학, 취업 등 향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를 말한다(고향자, 1993). 즉, 자신의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해 확고한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높은 점수는 보다 확고한 진로결정을 의미한다. Osipow(1999)는 진로결정의 문제가 전 생애를 통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생애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결정은 직업적 미래, 심리적 안녕, 건강,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일생 동안 계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성미, 2004).

국내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진로문제는 낮은 수준의 결정에 대한 확신성, 낮은 수준의 진로준비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또한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방법에 익숙치 않아 누군가가 결정해주기를 바라거나 혹은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며 충분한 탐색없이 성급한 조기종결을 보이는 등의 진로결정상의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미, 2004; Scott et al., 1995).

이러한 진로결정의 문제는 청소년이 희망 진로 또는 직업에의 실현 가능성과 접근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그들의 진로대안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즉,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따라 그들의 진로대안영역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발달단계상 진로대안영역이 너무 넓은

집단의 학생들은 좁은 집단의 학생에 비해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현실에 맞는 접근가능성(accessibility)과 일치가능성(compatibility)을 고려하지 못한 직업적 대안을 선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이 진로대안영역에 따른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들 집단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진로대안영역의 측정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직업적 선호도를 하나의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호 영역이나 선호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Howard et al., 2011). 진로대안영역의 측정과 관련된 한 연구(Leung, Conoley & Scheel, 1994)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직업포부를 회상하게 하여 이를 나이 대에 따라 나누고 각 직업포부의 성역할 유형점수와 지위 수준 점수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각 시기별로 나누어진 직업포부의 성역할 유형점수 범위와 지위 수준 점수 범위를 곱하여 시기별로 진로대안영역의 크기를 구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이성식(2004)은 자신에게 실현가능하면서 만족스러운 직업들을 자신의 직업인지도상에 위치시키고 지위수준 점수, 성역할 유형 점수들 중 최고값과 최저값으로 진로대안영역을 구하였다. 김영은, 정철영과 이건남(2012) 역시 실현가능하고 만족스러운 직업명을 개인의 직업인지도상에 위치시키고, 이 직업들의 지위수준 점수와 성역할 유형 점수들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구하여 한 개인의 진로대안영역의 지위상한선, 지위하한선, 성역할유형상한선, 성역할유형하한선을 구하였다. 반면 유정이, 김지현과 황매향(2004)은 직업포부 질문(장래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 답한 직업목록들을 뽑은 다음, 그 직업들 중 주관적 성유형값이 최고인 직업에서 최저인 직업을 빼 차를 주관적 성유형 직업포부로 명명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관적 사회적 지위 직업포부를 구한 후, 성유형 차이값과 사회적 직업 차이값의 곱(면적)을 구하고 직업포부로 명명하였다.

한편, 유홍준과 김월화(2006)은 직업지위를 직업에 대하여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업위세와 직업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부여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이용한 직업지위점수를 교육과 수입으로

도출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로 산출하여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자들의 측정방법을 토대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사회 환경적 변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분류된 잠재프로파일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잠재프로파일과 성역할,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적 및 진로결정수준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4개 여자고등학교, 9개 학급, 총 290명(1학년 106명, 2학년 93명, 3학년 9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 측정 도구

1) 여성성역할

여성성역할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Bem의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고안된 성역할 검사 제작 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이 각각 20개씩 총 60문항, Likert 7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7,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성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정진경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 학업성적

학업성적을 알아보기 위해 1학기 자신의 평균 등급(소수점을 반올림한 결과)을 설문지에 직접 기록하도록 하였다. 여자 고등학생의 평균 등급은 1등급~9등급까지 분포하고 있다.

3) 사회경제적 지위

Gottfredson(2005)은 자신이 생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비추어 개인의 진로 대안영역을 설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료 보다는 학생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을 평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정 형편’에 대해 Likert 5점 척도(1, 하~5, 상)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진로결정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고향자(1993)가 번안한 진로결정검사(Osipow, Carney & Barak, 197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와 전공선택에 대한 확신수준 2문항(1, 2번)과 교육과 직업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는 16문항(3~18번) 및 앞에서 반응한 내용을 명료화할 기회를 주지만 채점에는 포함되지 않는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2번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하며, 3~18번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확신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반응형 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고향자(199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5) 진로대안

진로대안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홍준과 김월화(2006)의 직업분류 125개 중에서 이성식(2004)의 직업목록, 이이라(2006)의 직업목록, 김복환(2013)의 직업목록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직업목록 중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여자고등학생 대부분이

알고 있으며, Holland의 흥미유형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총 60개의 직업목록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60개 직업목록 중에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현재 자신이 고려하고 있거나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질문을 통해 희망직업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희망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유홍준, 김월화, 2006)와 성역할유형 점수(한국고용정보원, 2009)로 변환하여 이들 각각의 상한점과 하한점을 진로대안영역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직업의 성역할유형 점수는 각 직업에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로대안영역을 구성하는 희망직업의 지위 상한선 점수, 지위 하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상한선 점수, 성역할유형 하한선 점수 총 네 개의 점수를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다양한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조합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체계적이고 의미있는 방식으로 모집단의 하위 집단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적합한 방식이다(이정은, 2010). 이를 위해 Mplus 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하기 위한 지수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kaike, 1974),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chwartz, 1978), LMR_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Entropy 지수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는 모두 설명력과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로 그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사용되는 LMR_LRT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증가시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합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조정된 χ^2 차이로 검증한다. 즉, k개의 집단 모형과 k-1개의 집단 모형을 비교할 때, LMR_LRT의 p-value값이 유의하면 k개 집단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집단 모형을 선택한다(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Entropy 지수는 각 하위집단을 분명하게 분류하였는지 즉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값으로, 0에서 1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만으로는 집단 구분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과 함께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집단의 수를 최종모형으로 선택하고자 하였다 (McCrae, Champman & Christ, 2006).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의 잠재프로파일과 여성성역할, 학업성적, 사회경제적 지위, 진로결정수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측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
관측변수 간의 단순상관 계수 및 평균, 표준편차

	1. 여성성 역할	2. 학업 성적	3. 사회 경제적 지위	4. 진로 결정 수준	5. 직업 지위 상한	6. 직업 지위 하한	7. 성역할 상한	8. 성역할 하한
1								
2	.043							
3	-.100	.242**						
4	.061	.133*	.159**					
5	.034	.149*	.127*	-.116				
6	-.050	.220**	.049	.110	-.040			
7	.105	-.321**	-.109	-.140*	.077	-.368**		
8	.080	-.145*	-.041	.167**	-.369**	.219**	.156**	
평균	86.58	5.74	2.92	47.51	76.79	66.36	82.28	23.93
표준 편차	14.19	1.71	.73	10.06	4.60	5.46	22.70	22.42

주. ** $p < .01$, * $p < .05$

2.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 분류

1) 진로대안의 잠재프로파일 수 결정

진로대안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구성하는 직업지위 상한, 직업지위 하한, 성역할 상한, 성역할 하한 점수를 산출하여 그 조합에 따라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2개부터 5개까지 분류하여 산출되는 지수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AIC, BIC, SSA_BIC 값의 변화그래프(그림 1)를 살펴보면 2집단, 3집단, 4집단 보다 5집단의 값이 훨씬 낮아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ntropy 지수는 2집단이 가장 좋고 3집단으로 갈 때 다소 감소하다가 4집단에서 다시 증가한다. Entropy 지수만으로 보면 2집단의 적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을 위해 LMR_LRT의 p -value값을 살펴보면, 3집단부터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2집단만이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집단과 5집단의 경우 한 개의 집단에 해당되는 사례수가 각각 13명, 10명이며, 이것은 전체 사례의 5% 미만에 해당되어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와 통계적 유의도 검증 결과 및 5%미만 집단수를 최종적으로 종합해 볼 때, 2집단 또는 3집단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집단 중에서 3집단은 LMR_LRT의 p -value 값이 유의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집단이 더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표 2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2	3	4	5
AIC	3449.004	3434.340	3430.142	3292.632
BIC	3506.579	3527.899	3559.685	3458.159
SSA_BIC	3455.848	3445.461	3445.541	3312.308
Entropy	.897	.794	.810	.790
LMR_LRT	596.856	34.056	21.482	33.696
LMR_LRT p -value	.011	.380	.458	.595
전체사례의 5%미만 집단수	0	0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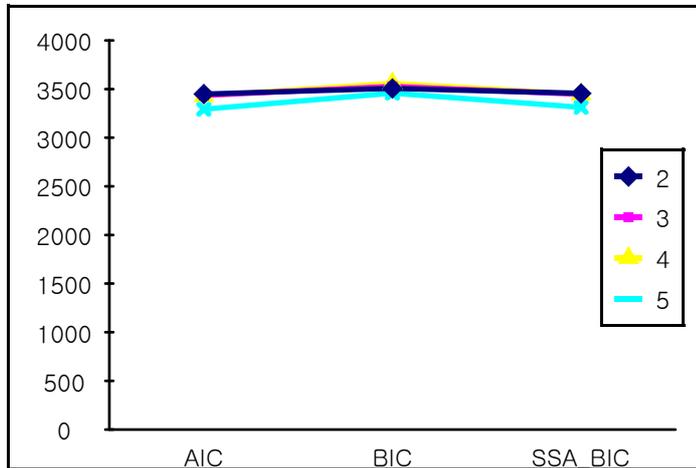


그림 1.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AIC, BIC, SSA_BIC 변화

2) 진로대안 집단 분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집단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집단은 전체 분석 대상의 27.8%가 속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는 평균보다 다소 낮고 좁은 범위를, 성역할유형은 평균을 기준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 첫 번째 집단을 직업지위제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전체 분석 대상의 72.2%가 속해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가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성역할유형은 보다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이 두 번째 집단을 잠정적으로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진로대안집단을 각 요소별로 영역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2와 같다.

표 3

각 잠재프로파일 집단별 구성 비율 및 표준화된 추정평균

	집단크기 (N)	집단비율 (%)	지위 상한	지위 하한	성역할 유형 상한	성역할 유형 하한
잠재프로파일 1	75	27.8	-.047	-.139	.525	-.555
잠재프로파일 2	195	72.2	.530	-.637	.323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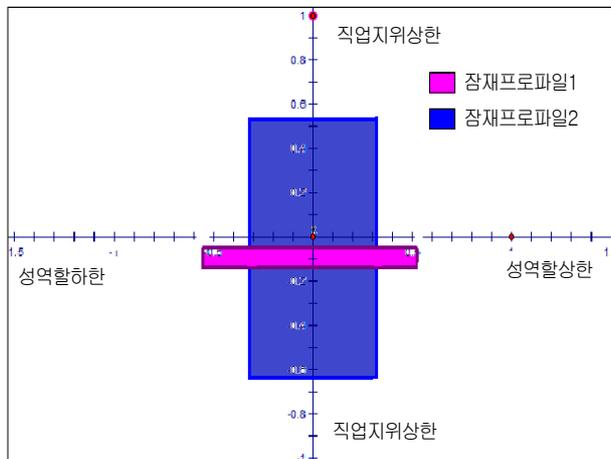


그림 2. 진로대안 집단 분류

3.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과 영향 요인 검증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 잠재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잠재집단인 직업지위제한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두 번째 집단인 직업지위확대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직업지위확대 집단은 직업지위제한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성역할이 높을수록 직업지위확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으며, 학업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제한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표 4
진로대안 잠재프로파일 영향 요인

비교집단	기준집단 (Reference Class)	독립변인	계수	표준오차	t	p
		여성성역할	0.026	0.010	2.578	**
직업지위 확대 집단 (2집단)	직업지위 제한 집단 (1집단)	사회경제적지위	-0.043	0.096	-0.446	-
		학업성적	-0.091	0.025	-3.571	***
		진로결정 수준	-0.073	0.017	-4.214	***

V. 논 의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은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을 조력하는 과정이며, 이는 발달과 선택의 개념을 토대로 한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특히 개인은 자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진로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진로에 대한 만족도와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과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희망직업의 선택을 의미하는 진로대안영역 즉 직업선택의 폭을 좁혀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한 진로발달 과정을 거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으며(Osipow, 1983) 특히 여자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은 더 복잡하고 외부 환경적 요소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포부와 진로대안에 대한 요구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었으며(Heibert, 1998), 진로대안영역의 측정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몇몇 연구(김복환, 2013; 이성식, 2004; 황매향 외, 2003)의 경우, 직업지위 점수와 성역할유형 점수에서 측정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

적인 점수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희망 직업의 지위수준으로 직업포부 수준을 파악하고 직업포부 수준이 낮은 경우를 진로 발달의 측면에서 문제시 여기는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므로 직업포부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의 직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의 직업발달에서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의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특성에 적절하며 실현가능한 직업을 잘 선택하여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복잡한 진로발달의 단계에 있는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의 유형화 연구를 통해 그들이 진로대안의 패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각 집단에 따라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정 진로대안 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진로대안영역의 각 집단에 따라 어떠한 접근을 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분석대상인 여자 고등학생의 진로대안영역은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석 대상의 27.8%가 속해 있는 첫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는 평균보다 다소 낮고 좁은 범위를, 성역할유형은 평균을 기준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제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반면, 전체 분석 대상의 72.2%가 속해 있는 두 번째 집단은 네 가지 진로대안의 구성 요소 중 직업지위가 첫 번째 집단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가지며, 성역할유형은 보다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고 있어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집단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만의 구체적인 뚜렷한 특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잠정적으로 위와 같이 명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대안 집단 구분에 있어서 성역할유형보다는 직업지위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2/3이상의 학생들이 아직 자신의 희망직업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직업의 성유형보다 직업지위를 더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공윤정, 2011; 이기학, 200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자고등학생의 진로대안의 각 잠재집단과 개인 및 사회환경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성성역할이 높을수록 직업지위확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진로

결정수준이 높을수록 직업지위제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 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무조건 높은 지위의 직업보다는 자신에게 적절하고 안정적인 희망직업을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무조건 높은 지위의 직업들을 선호하지는 않는다는 연구(Slocum & Bowles, 1968)를 통해 일정 부분 지지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업지위제한 집단의 경우, 자신의 여성성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직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직업의 사회적 개념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고 자신의 성격, 흥미, 적성 및 능력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를 통해 진로대안을 선택하고 좁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엇보다도 직업세계에 대한 보다 체험적이며 올바른 직업가치 및 태도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황매향 외, 2004). 다음으로, 직업지위제한 집단의 경우는 직업지위면에서 좁은 범위의 희망직업을, 성역할유형면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집단으로 학업성적과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집단의 경우, 자신의 희망직업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능력이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직업인지 또는 자신의 성역할과 희망직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 이외의 진로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다른 능력들(예. 인간관계 능력, 자기이해 능력 등 다중지능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의 평가를 통해서도(공윤정, 2011) 직업포부 및 진로대안과 관련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의 여러 개인 및 사회환경적 특성이 진로대안 프로파일 분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진로대안을 변수중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찰대상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분석대상인 여자고등학생들이 갖는 진로대안 하위 구성요소들의 다양한 프로파일과 그 조합의 형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학문적 차별성이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대안의 직업지위와 성유형의 상하 경계선, 또는 직업포부 수준에 대한 연구(이성식, 2004; 김복환, 2013; 황매향 외, 2003) 보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대안영역의 특성에 따른 개입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들 미래의 대학과 전공 선택, 직업 선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도 보다 실제적인 개입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은 인문계 여자고등학생으로 국내 일부 지역에서 편의적 표집법에 의해 선택되어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 범위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교특성별, 남녀집단별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진로대안 측정 방법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보고되었지만(이성식, 2004) 객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객관화된 진로대안영역을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명칭에 있어서 특히 두 번째 집단의 경우 첫 번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인해 직업지위확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두 번째 집단의 고유한 특성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진로대안에 영향을 주는 변수(예. 진로자기효능감, 부모지지, 흥미 등)를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진로대안을 집단별로 나누어 각 집단에 따라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선택에 대한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할 것이며, 진로상담 전략과 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향자 (1993).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공운정 (2011). 청소년의 성적, 학업적 자기효능감, 성역할과 직업포부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19(1), 127-141.
- 김경주, 송병국 (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 요인 구조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30(2), 91-115.
- 김복환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성적, 성역할고정관념과 진로대안의 관계에서 성격특성의 역할**.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은, 정철영, 이진남 (2012).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직업인식, 진로대안영역 및 직업포부.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5(4), 169-194.
- 김현정 (2000).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부모의 직업유형, 성역할 정체감, 성취동기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미 (2004). 무료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장애 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124-135.
- 박열매 (2011). 초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존중감, 부모의 학력과 직업포부의 관계. **초등상담연구**, 10(1), 95-108.
- 선혜연, 황매향, 김영빈 (2009).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직업가치 추구. **상담학연구**, 8(2), 549-563.
- 오현석, 최예슬 (2009). **개인의 배경변인과 학업성취도가 희망직업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유정미, 김지현, 황매향 (2004). 중·고등학생의 직업포부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2(2), 315-333.
- 유홍준, 김월화 (2006). 한국 직업지위 지수: 과거와 현재. **한국사회학**, 40(6), 153-186.
- 이기학 (2005). 진로선택타협과정에서 보이는 선호도에 대한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특성의 상호작용효과연구. **상담학연구**, 6(3), 849-859.
- 이성식 (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의 진로장벽, 학업 효능감 및 진로포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산교육학연구**, 13(2), 101-123.
- 이정은 (2010).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의 직장-가정 적합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지혜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KSRI).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조단비, 정철영 (2005). 전문대학 비서관련과 여학생의 직업 및 교육 포부의 발달에 관한 질적 연구.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1), 151-174.
- 한국고용정보원 (2009). **2009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기초분석보고서: 8차년도 자료분석**.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현안나 (2009). 초등학생들의 잠재적 일탈집단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197-234.
- 황도연 (2009). **학업 우수 여자 청소년의 성역할 사회화와 진로포부 전통성에 관한 모형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 (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 황매향, 박은혜, 유성경 (2006). 학업우수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직업포부수준 비교. **상담학연구**, 7(4), 1137-1152.
- 황매향, 김지현, 유정이 (2003). 중·고등학생의 직업인식 발달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1(1), 3-12.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Betz, N. F. (1994).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pp. 1-41). Hillsdale, NJ: Erlbaum.
- Blau, P. M., &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Eccles, J. (2011). Gendered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Applying the Eccles et al. model of achievement-related choi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3), 195-201.
- Ganzeboomh, H. GB., & Treiman, D. J. (1996). Internationally comparable measures of occupational status for the 198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Social Science Research, 25*(3), 201-239.
- Ginzberg, E., Ginburg, S. W., Axelra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 general theory*.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179-23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ibert, E. H. (1998). *Every child a reader, topic 4: High-frequency words and fluency*. Every Child A Reader: Applying Reading Research in the Classroom.
- Howard, K. A. S., Carlstrom, A. H., Katz, A. D., Chew, A. Y., Ray, G. C., Laine, L., & Caulum, D. (2011). Career aspirations of youth: Untangling race/ethnicity, SES, and gende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 98-109.
-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Good item or bad-can latent class analysis sell?: The utility of latent clas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71*(3), 723-738.
- Lee, I. H., & Rojewski, J. W. (2009). Development of occupational aspiration prestige: A piedewise latent growth model of selected influ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82-90.
- Leung, S. A., Conoley, C. W., & Scheel, M. J. (1994). The career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 retrospective study.

-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2(3), 298-303.
- Lopez, F. G., & Ann-Yi, S. (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 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 Luzzo, D. A. (1993). Ethnic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1(4), 227-236.
- McCrae, J. S., Cham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Naoko, K., & Treas, J. (1992). *The 1989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Construction from the 1989 occupational prestige scores* (GSS Methodological Report, No. 74). Chicago, IL: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e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 535-569.
- O'Brien, K. M., Gray, M. P., Tourajdi, P. P., & Eigenbrode, S. 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 Osipow, S. H. (1999). Assessing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5(1), 147-154.
- Osipow, S. H. (1983). *A manual for measures of occupational stress, strain, and coping* (form E-2). Marathon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 233-243.
- Perrone, K. M. (2009).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work and family roles for women and 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1), 3-7.

- Rojewski, J. W. (2005). *Occupational aspirations: Constructs, meanings, and applica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131-154).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choon, I., & Parsons, S. (2002). Teenage aspirations for future careers and occupational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262-288.
- Schwartz, G. (1978). Estimation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ott, E. S., Reppucci, D., & Woolard, J. L. (1995). Evaluating adolescent decision making in legal contexts. *Law and Human Behavior, 19*(3), 221-244.
- Slocum, W. L., & Bowles, R. T. (1968). Attractiveness of occupations to high school student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6*(8), 754-76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5), 185-190.
- Super, D. E. (1972).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Persons, positions, processes*. In J. M. Whiteley, & A. Resnikoff (Eds.), *Perspectives on vocational guidance*. Washington, D. 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ABSTRACT

Identifying latent profiles in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amongs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With a focus on career status and feminine gender roles

Ha, Moon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latent profiles in the zones of acceptable alternatives amongst female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test the relationship of the above to feminine gender roles,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decision-making on determining latent profi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latent profiles in the zones of acceptable alternatives: A 'Limited group of job status' and an 'Expanded group of job status'. It was also found that socioeconomic status between the two group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whereas the higher female gender role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Expanded group of job status', and those demanding higher academic achievement level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Limited group of job stat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enrich future research into career choices and decision making as well as to help develop preliminary materials for career counseling of adolescents, especiall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Bo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also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adolescents,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feminine gender roles, socioeconomic status, academic achievement, career decision-making

투고일 : 2013. 12. 9, 심사일 : 2013. 12. 20, 심사완료일 : 2014. 1. 20

* Hongik University